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건물과 시설 모두 좋았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시설들이 잘 되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스카이 트레인 역도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수업	<p>3주동안 'English Essentials', 'Cultural Studies', 그리고 'Global English'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제가 제일 유익했다고 느꼈던 수업은 성찰적인 글쓰기에 대해 배울 때입니다. 매주 한 번씩 일기쓰기 숙제를 내주시는 데 꼼꼼하게 수정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문을 읽고 내용 요약해 오는 것, 호스트 가족 인터뷰하기, 그리고 일기 쓰기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20분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숙제였습니다. 교실에서 하는 수업 외에도 오후에 컬링, 아쿠아리움, 그랜빌 아일랜드, 밴쿠버 박물관, 스노우 슈잉 등 야외 활동을 5번 정도 합니다. 저는 컬링과 스노우 슈잉이 제일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활동인 만큼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p> <p>겨울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 15명밖에 없어서 분반을 하지 않습니다. English Only라는 규칙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말 몇 명만, 극소수의 학생들만 수업 중에 영어를 씁니다. 저 또한 수업 중에 한국어를 쓰는 학생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한국어로 큰 소리로 대화하고 시끄럽게 떠들어 수업을 듣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p> <p>유익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수업 난이도가 너무 낮아 정말 지루했습니다. 약간 내가 지금 어학연수를 왔는지 중학교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있는 지 혼동이 될 정도. 수업 난이도가 낮았던 것 빼고는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 영어로 발표와 토론을 해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p>
Activity	스노우 슈잉을 할 때 오버 슈즈를 빌린다면 8달러 정도가 듭니다. 그

	것 외에는 추가 비용 드는 활동은 없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레인쿠버라는 별명답게,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3주 동안 해가 3번밖에 안 났습니다. 해가 보이면 반가울 정도로. 우산은 정말 꼭 가져가야 합니다. 방수되는 옷이나 신발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온도는 높아도 하늘이 흐려 쌀쌀하니까 두꺼운 옷 몇 벌은 챙겨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안전	밴쿠버에는 홈리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길에서 대마초를 피는 사람들도 은근 많지만 길에 사람이 많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시에서 5시 사이면 캄캄해져 8시 전에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저는 딱히 규칙 같은 게 없어 나름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대신 일본과 브라질에서 온 다른 학생들과 층을 같이 썼지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신발을 벗기 때문에 슬리퍼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함 점이 있다면, 방이 정말 추웠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아 이불이 두툼해도 공기가 차가워 수면 양말을 신고, 후드 집업을 입고 잤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아침은 시리얼을 먹고, 점심에는 홈스테이 맘이 싸준 샌드위치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먹거나 미리 찾아놓은 식당에서 사먹었습니다.
교통	학교는 49번 버스를 타고 등교했습니다. 버스가 많이 붐벼 20분 정도 버스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다운타운과 개스타운에는 캐나다라인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갔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은 자주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 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1,411,9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330달러	쿠키, 초콜릿, 아이스와인, 인형, 비타민, 핸드크림, 로션, 시럽.
외식(저녁, 점심)	400달러	맛난거
그 외 잡다한 것	70달러	
합계	800달러	

5. 출국 전 준비사항

캐나다 날씨. 꼭 알아봐야합니다. 진짜로.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이메일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국보다 따뜻한 거는 맞는데, 햇빛이 없어서 마냥 따뜻하지는 않으니 꼭 알아보고 가세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자세하게 찾아보고 가야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만한 활동을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 몇 개 챙겨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운타운에 H 마트라는 한국 마트가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가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한국에 오니 막상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3주는 한 언어를 배우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우기에도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기에도. 하지만 이번 단기 연수를 통해 캐나다의 문화와 영어를 더 깊게 배우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캐나다에 도착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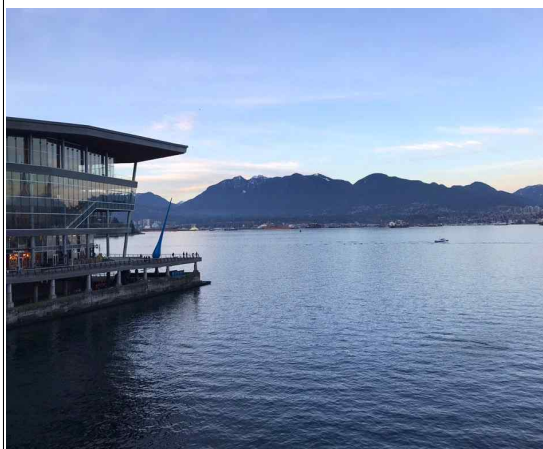
오크리지 물에서 먹은 푸틴



개스 타운(스팀 클락)



사진설명



캐나다 플레이스



컬링